

30년 만의 제한급수 현실화 우려... 컨트롤 타워 필요성 제기

광주·전남 식수원 저수율 심각
완도·진도 중심 1일 급수 6일 단수
“총체적인 동력 확보 필요” 의견



지난 11일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동복호 취수탑 주변 수위가 낮아져 있다. /뉴시스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우려했던 비상급수 사태가 눈앞에 와 있다. 30년 만의 제한급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당국은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짜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물 20% 아껴쓰기 캠페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 체감도는 떨어진다.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일사불란해 보이지 않는다.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뭄 사태는 재난이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광주·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와 주암호의 저수율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동복댐의 저수율은 32.5%, 주암댐은 32.3%까지 떨어졌다.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대에 머물다보니, 예년 평균 저수율 85%대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이다.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30년 만의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동복댐의 경우 저수용량 3095만, 하루 취수량 22만 1000㎥ 등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제한급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주암호의 저수용량도 1억 4900만㎥로, 수돗물 공급 가능일수가 똑 떨어져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1992년 12월 21일부터 156일 동안 제한급수가 실시된 이후 30년 동안 제한급수가 없었다.

전남에서는 완도와 진도 등을 중심

으로 이미 1일 급수 6일 단수까지 시행하고 있다.

가뭄 위기관리단계가 지난 8월 이후 3개월째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공동 발표한 ‘11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의 56~71%에 그치고 내년 1월까지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정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물 아껴쓰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월 1만 이상 다량 급수처를 대상으로 물 절약실적을 집중관리하고 노후수도 계량기 교체와 누수잡기, 빗물 활용 등 다양한 대책들을 짜내고 있다. 필요할 경우 영산강 하천수와 장성댐, 담양댐 용수까지 끌어 쓴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행정당국의 가뭄대응-비상급수 전략도 상수도사업본부 등 특정부서 중심으로만 진행될뿐 총체적인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부서에 따라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 부서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부단체장급 이상을 위 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기구가 꾸려져 모든 부서와 자치구 등을 총괄해야 한다. 지금처럼 상수도본부 중심으로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동이 어렵고 모든 부서의 협조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

‘2022 북적북적 바자회’ 연다

순천시는 오는 19일 순천기적의도서관 일원에서 ‘2022 북적북적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북적북적 바자회’는 어린이·시민·출판사·서점 등이 참여하는 플라마켓과 시민과 출판사가 기부한 책을 나누는 책장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는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을 ‘남수단의 수바이치’故 이태석 신부가 헌신한 남수단 톤즈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와 학용품 후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순천(전남)=양수영 기자

전남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초동방역

전라남도는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1만 1000마리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지난 15일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

이번 검출은 사육 중인 오리 폐사가 늘어남에 따라 농장주가 신고,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확인된 것이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H5형 AI 항원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확산 차단을 위해 검출농장을 포함해 1km내 사육 중인 오리농가 5농가 7만 1000마리를 선제 살처분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상주시

전략품목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

상주시가 시군전략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20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함창읍·이안면 일원에 오이전문 스마트 온실, 무인방제 시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시설장비 등 2.3ha(6호)를 조성한다.

상주시 겨울 오이 재배 면적은 176ha로 전국 유통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농자재값 등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농가의 기술력과 첨단 오이 재배시설 구축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민·관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상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권기창 안동시장(왼쪽 두번째)이 ‘임청각 복원·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담양군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사업 추진

ICT 활용 융복합 냄새저감 기술 투입

담양군이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 개선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시범농가의 축사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측정시스템, 플라즈마 악취제거기, 쿨링포그 시스템 등 ICT 활용 융복합 냄새저감 기술을 투입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축산연구소 개발 악취저감 미생물을 처리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축산연구

소와 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시범농가의 양돈농장 내·외부 냄새 물질을 주기적으로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악취물질인 암모니아를 76.6%, 황화수소를 47.4%, 복합악취 수치 51.7% 이상 감소시켰다.

최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이규현 도의원, 축산연구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관계자 14명이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축산 냄새저감 융복합 기술 투입 현황을 확인하고, 농장 대표를 만나 냄새 민원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권기창 안동시장, 역점사업 현장 방문

내실·실효성 갖춘 해법 모색

다양한 관광 아이템 적극 발굴 체험형 공간재창출 사업 등 추진

권기창 안동시장이 임청각과 성락철교 등 지역 역점사업 현장을 찾아 내실과 실효성이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지역 시의원들과 당면 현안을 공유하며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깊이 있게 협의했다.

권 시장은 먼저 「임청각 복원·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임청각 앞 도로 정비계획과 관련해 “현시점의 상황으로만 보지 말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 폭을 보다 확대해 향후 증가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으며, 또한 “단순한 문화재보수, 기념관 건립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한번 방문한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아이টে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임청각 복원·정비 계획은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임청각 복원·정비와 함께 공유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앙선 철로 철거 후 2021년 12월에 복원·정비공사 착수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임청각을 살린 후, 권 시장은 월영교 인근 성락철교로 자리를 옮겨 「원도심~월영교 테마화거리 조성사업」을 논의했다.

권 시장은 “유휴부지 폭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간에 길이 단절되지 않게 조성해 장애인과 노약자들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테마화 거리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영락교와 월영교 사이에 설치할 예정인 수상무대에 대해 카페와 워터스크린, 음향시설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상시 공연장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원도심~월영교 테마화거리 조성사업은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해 15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지리산 쌍계사·불일폭포 일원, 명승 지정

하동군 명승 첫 등재

하동군은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이 지난 11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명승 지정은 지난 2월 하동군이 자연유산 우수 잠재자원 추천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청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지정예고를 거쳐 이뤄졌으며, 하동군에서 명승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로서의 명승은 경관성·역사성 등 종합적 가치가 충족돼야 지정되는데 이번 지정을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의 종합적 가치를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은 과거부터 다양한 문헌에 등장하는 지



쌍계사 전경. /하동군

명한 명승지로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하다. 특히 지리산 10경 중 하나인 불일폭포는 약 60m 높이의 거대한 폭포로 다양한 식생과 기암괴석, 계곡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불일암에서 조망하는 지리산의 전경은 빼어난 비경을 보여준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경남TP, ‘경남IT 엑스포’ 개최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가 오는 1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경남 IT 엑스포’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IT·소프트웨어 관련 지역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경남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우수작 전시 및 시상 ▲잡페어(온·오프라인 채용면접) ▲도내 IT·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홍보 ▲에비 소프트웨어 개발자 작품 전시(경남지역 대학의 졸업작품) ▲IT·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사업 소개 ▲부대행사(신기술 특강, 구직자 대상 체험)가 진행된다.

/경남=이도식 기자